

#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25 / 2009.6.26

## □ 영국, '20년까지 온실가스 34% 감축 계획

-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대 핵심 계획을 담은 실천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영국 농무성(DEFRA)의 주도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동 실천계획은 탄소배출량을 '20년까지 '90년 대비 34%, '50년까지 80% 감축하는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7월 중순 감축목표 달성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12월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도출하는데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6월 말 코펜하겐 협상 목표를 설정할 예정임.
- 103개의 주요 공공기관은 각각 기후변화위험 평가 및 대응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 부처들은 '10년 4월까지 적응(adaption)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동 계획은 개인을 비롯한 기업과 커뮤니티가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할 예정으로, 정부의 'Act on CO<sub>2</sub>' 캠페인을 토대로 단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이 시행될 예정임.

(Energy Efficiency News, 2009.6.19), (Departments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2009.6.18)

### NEWS

- 영국, '20년까지 온실가스 34% 감축 계획
- 일본, 3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추진
- 일본, 광물자원 보유국과 협력강화 지원
- 일본 후지경제, '15년 친환경자동차 세계시장 대폭 확대 전망
- 이토추 외 3개사, 호주 우라늄개발 프로젝트 조사에 참여
- 도쿄전력, 파푸아뉴기니산 LNG 장기계약 체결
- 미츠이, 국내 CDM 사업에 참여
- 대만,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법안 통과
- CNPC와 Sinopec, 석유제품 저장 및 정제능력 5년 내 대폭 확대
- 인도 릴라이언스, 이란에 석유제품 수출 중단
- 미국, 자동차업계에 저탄소·고효율자동차 개발 지원 예정
- 이라크, 국내 반대 불구 1차 입찰결과 공개 추진
- 이란, '15년 주요 LNG 수출국 부상 목표
- 쿠웨이트, 8월부터 자국 내 최초 LNG 수입
- 쿠웨이트-중국, 중국 내 \$90억 규모의 정제시설 추진
- 요르단-영국,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
- 이집트, 화이스라엘 가스가격 협상력 강화
- 러시아, 신규 유전에 대한 과세완화 검토
- 러시아 가스프롬, 이란-파키스탄 가스파이프라인 참여 가시화
- 프랑스, 저탄소자동차 개발에 자금 지원
- EPIA, 유럽 태양광발전의 경쟁력 제고위한 지원 촉구
- 스위스, '10년 탄소세 3배 인상 계획
- Electrabel, 네덜란드에 고효율 복합화력발전소 착공
- 케냐, 청정에너지개발로 에너지원 다변화 추진
- 석유메이저, 국제유가 회복세에도 투자 확대에 신중
- 항공업계, 5년 내 바이오연료 사용 전망

### ANALYSIS

- 미국 정부의 자동차연비 기준강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
- 중국,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관련 자발적 감축 제안 입장발표

### REPORT

- 선물곡선 변화와 원유재고 감소에 따른 석유 시장전망

Oil Prices (Spot, \$/bbl)





## ASIA, AMERICA & MIDDLE EAST

### □ 일본, 3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추진

-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10년을 시계로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정에 착수할 방침임. 동 개정작업은 7월 경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산업성 자문기구)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지난 6월 10일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15% 감축하는 확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연료 가격도 여전히 불안정하여 환경보전 및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 등의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재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계획은 '07년 3월에 내각에서 결정되었음.
- '08년 7월 일본 정부가 책정한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에는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60~80%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년까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시스템의 비율을 50%로 높이는 목표도 표명하고 있음.
-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에너지수급의 부족 및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임.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 핵연료사이클을 포함한 원자력, 수송부문의 에너지원 다양화, 종합적인 자원외교의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電氣新聞, 2009.6.24)

### □ 일본, 광물자원 보유국과 협력강화 지원

- 일본 정부는 희유금속 등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보유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동 정부는 자원보유국인 개도국의 광산 주변에 인프라 정비를 계획하는 일본 기업



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동 정부는 일본 석유천연가스자원기구(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OGMEC)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 8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자원보유국의 광산 주변 도로 및 발전사업 등의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에 각각 4,000~6,000만 엔 수준임.
- 지원 대상후보로는 미쯔비시마테리얼이 호주기업의 합작투자회사(JV)와 피지 바누아 레부(Vanua Levu)섬의 동·금 광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채광작업에 필요한 지열발전과 환경부하가 적은 화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조사가 있음.
- 상기 조사결과 일정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정부는 차관제공 및 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를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자원 확보에 현지 정부와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차원에서의 자원개발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Fujiisankei Business i, 2009.6.23)

## □ 일본 후지경제, '15년 친환경자동차 세계시장 대폭 확대 전망

- 일본 조사기업인 후지경제는 6월 18일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차(HV), 연료전지차(FCV) 등의 친환경자동차의 세계 시장규모를 '15년에 '08년 대비 6배인 12.1조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우선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시장을 견인하며, 금년 이후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및 전기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15년에 1,112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동 사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시장규모는 약 10조 엔으로 예상되며, 인프라·서비스부문에서는 주유소 및 유료주차장에서의 충전서비스나 자동차공동이용(car sharing), 충전설비 주택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 또한 동 사는 '15년까지 각국의 주요 도시에 급속충전기 등의 충전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기업 및 개인 대상의 보급확대 전제하에 추산한 전기자동차



차의 보급대수가 22만대 이상에 달하고, 시장규모는 8,000억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정비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임. '08년 7월 일본 정부에서 책정한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에서는 '20년까지 신차판매의 절반을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 동 성은 주유소에서의 충전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및 대형주차장에 적절한 충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증하며, 차량항법장치(car navigation system)를 사용한 충전예약시스템 등 충전서비스와 연계된 사업형태도 시범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電氣新聞, 2009.6.19)

#### □ 이토추 외 3개사, 호주 우라늄개발 프로젝트 조사에 참여

- 이토추, 간사이전력, 시코쿠전력, 큐슈전력은 6월 18일 각사가 출자한 니치고(日豪, Japan Australia)우라늄자원개발사의 협력을 통해서 캐나다의 메가우라늄사가 호주에서 추진하는 우라늄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였음.
- 동 프로젝트의 대상지역은 서호주 수도 퍼스에서 북동 약 700km에 위치하는 동부 골드필드의 레이크 메이틀랜드 광구이며, 동 광구의 우라늄 추정 매장량은 약 9,100 톤으로 예상됨. '11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타당성조사가 추진되고 있음.
- 타당성조사는 법제적 및 기술적 부문의 검증,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추산, 자금조달에 관한 검증 등을 실시함.
-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발사업 참여가 결정될 경우 메가우라늄으로부터 지분 30%를 획득할 예정이며, 각 기업의 지분은 간사이전력 15%, 이토추상사 8%, 큐슈전력 7.5%, 시코쿠전력 4.5%가 될 것으로 예상됨.

(Itochu商事, 2009.6.18), (Fujisankei Business i, 2009.6.19)



## □ 도쿄전력, 파푸아뉴기니산 LNG 장기계약 체결

- 도쿄전력은 파푸아뉴기니산 LNG를 장기계약하여 구입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3년부터 수입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200만 톤을 수입할 예정임.
- 일본은 최대의 LNG 수입국이지만,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중국 및 미국 등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 사는 공급처를 분산하여 발전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할 계획임.
- 동 사는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첫 LNG 개발사업인 'PNG·LNG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를 수입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의 LNG 생산량은 연간 630만 톤으로 예상됨.
- 동 프로젝트는 미국 엑슨모빌이 개발을 주도하고 신일본석유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2009.6.22)

## □ 미츠이, 국내 CDM 사업에 참여

- 미츠이물산은 목재공장의 목재건조시설에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내 CDM 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 동 사업은 목재공장의 목재건조시설에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대신,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를 통해 '09년 7월~'13년 3월까지 연간 약 4,500 톤의 CO<sub>2</sub> 감축을 기대함.
- 동 사는 향후 국내 CDM 사업 이외에, 탄소상쇄(Carbon Offset)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 118건의 국내 CDM 사업을 접수받았으며, 118개의 신청 사업이 모두 승인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간 11.4만 톤의 CO<sub>2</sub> 감축을 기대함. 동 성은 향후 사업계획의 승인작업 및 감축실적의 확인 등을 거쳐서 국내 CDM 사업을 확대할 방침임.

(工業新聞, 2009.6.19)



## □ 대만,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법안 통과

- 대만 의회는 300억 타이완달러 규모의 투자를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킴. 동 법안은 향후 20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2,278MW에서 6,500~10,000MW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고 있음.
  - 투자액 중 150억 타이완달러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탄소배출 감축과 인력 교육에 각각 11.5억과 2억 타이완달러가 사용될 예정임.
  - 또한 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태양에너지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가격메커니즘을 수립할 예정임.
  -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자들은 전력가격으로 kW당 8 타이완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kW당 2 타이완달러에 Taiwan Power Co.로 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 동 법안은 CO<sub>2</sub> 배출량을 '16년까지 '08년 수준으로, '25년까지 '00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대만 정부계획의 일환이며, 청정에너지업계는 1~2년 내 1,000억 타이완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ViewsWire, 2009.6.15)

## □ CNPC와 Sinopec, 석유제품 저장 및 정제능력 5년 내 대폭 확대

-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CNPC와 Sinopec은 양사의 상업적 석유제품 총 저장능력이 향후 5년 내 4,000만m<sup>3</sup>까지, '08년 말 2,768만m<sup>3</sup> 대비 45%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신규 추가 석유제품 저장탱크는 양사가 지정한 개발예정 정제시설단지의 일부분으로 건설될 예정임. 양사의 전체 정제능력은 '15년까지 현재 연간 3.5억 톤에서 5.7억 톤으로 62.9%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특히 '06년과 '07년의 석유제품 부족을 겪으면서 석유제품 공급 및 사회적 안정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 저장능력을 강화해왔음.



- '08년 말 기준 중국은 저장탱크 총 194만개, 5,200만m<sup>3</sup> 규모의 석유제품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China Oil, Gas & Petrochemicals, 2009.6.15)

## □ 인도 릴라이언스, 이란에 석유제품 수출 중단

- 이란에 석유제품을 수출해오고 있던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이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판매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5월 이란에 석유제품 수출을 중지했다고 인도 언론이 전함.
  - 지난 4월 이래 미국 의회는 석유제품을 이란에 공급하는 회사들에 대해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봉쇄하는 등의 경제제재 추진 법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연간 석유제품 수출액은 \$140억으로 이 중 5%(\$7억)는 對미국 수출이며, 2%(\$2.8억)는 對이란 수출임.
  -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인도 서부 Gujarat의 Jamnagar에 66만b/d 용량의 정제시설을 운영 중이며, 자회사인 릴라이언스 페트롤리엄은 58만b/d 용량의 수출용 플랜트를 가동 중임.
- 이란이 수입하는 석유제품의 약 80%는 UAE산이며, 나머지는 터키, 스페인,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포르의 석유제품임.
  -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이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ViewsWire, 2009.6.17)

## □ 미국, 자동차업계에 저탄소·고효율자동차 개발 지원 예정

- 미국 에너지부는 포드, 테슬라, 닛산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일자리 유지 및 자동차 연비개선을 위해 총 \$80억 규모의 자금을 융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에너지부는 지난 2월 75개 업체가 총 \$380억 규모의 융자신청을 했다고 밝힘. 세계 경기침체로 자동차 제조업계의 수익이 악화되었고, 저탄소·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 포드는 '11년까지 \$59억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표준 가솔린엔진에 적용하고,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 테슬라는 \$4.65억의 대출금을 신규 세단 모델 생산공장 및 판매용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건설에 사용할 예정임.
- 닛산은 \$16억을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여 모든 전기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테네시주 스머나공장 확장에 사용할 예정임.

(Bloomberg, 2009.6.23), (USA Today, 2009.6.23)

## □ 이라크, 국내 반대 불구 1차 입찰결과 공개 추진

- 이라크 정부는 '03년 이후 첫 개발권 입찰에 대한 국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석유회사(IOC)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권 부여 결과를 6월 29~30일에 공개할 예정임.
- 이라크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하면, 30년 전 이라크의 석유산업 국유화로 이라크에서 축출되었던 IOC가 20년 기한의 서비스계약을 통해 이라크로 돌아오게 됨.
- 그러나 IOC에 개발권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연성차관과 연계된 \$26억 규모의 1차 허가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소수의 몇몇 기업이 최종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법적 틀이 마련되기까지는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이라크는 '08년 6월 6개 유전 및 2개의 가스전을 대상으로 1차 입찰을 개시하였음. 당시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1차 계약을 체결하여 '12년까지 생산량을 150만b/d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9.6.22)

## □ 이란, '15년 주요 LNG 수출국 부상 목표

- 이란은 '15년까지 LNG 7,000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주요 LNG 공급자로 부상하기 위해 7개 LNG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페르시아 LNG 프로젝트(연간 1,620만 톤 LNG 생산목표), 파스 LNG



프로젝트(연간 1,000만 톤), 이란 LNG 프로젝트(연간 1,080만 톤), 노스 파스 프로젝트(연간 2,000만 톤), 골산 LNG 프로젝트(연간 1,000만 톤) 및 기타 2개 프로젝트(연간 LNG 생산목표 합계 300만 톤)임.

- 이 중 이란 LNG 프로젝트는 '11년, 페르시아 LNG 프로젝트와 파스 LNG 프로젝트는 '14년, 노스 파스와 골산 프로젝트는 '15년 생산개시 예정임.

- NIGEC(National Iranian Gas Export Company)에 따르면, 생산된 LNG의 목표 시장은 아시아와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이란은 이미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과 협상을 시작했음.

(Iran Daily, 2009.6.20)

## □ 쿠웨이트, 8월부터 자국 내 최초 LNG 수입

- 1인당 전력소비에 있어 세계 상위권인 쿠웨이트는 하절기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용 가스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금년 8월부터 자국 내 최초로 LNG를 수입하는 계약을 로얄 더치 셸과 체결하였음.

- 셸은 인도예정인 LNG 규모나 가격, 계약기간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쿠웨이트는 5억ft<sup>3</sup>/d의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시설을 아흐마디항에 건설 중임.

- 쿠웨이트는 하절기 가스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카타르와도 LNG 수입협상을 진행 중임.

(Reuters, 2009.6.22)

## □ 쿠웨이트-중국, 중국 내 \$90억 규모의 정제시설 추진

- 쿠웨이트 KPI(Kuwait Petroleum International)는 쿠웨이트 국영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와 아시아 최대 정유회사인 Sinopec이 진행 중인 \$90억 규모의 정제시설 및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차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6월 마지막 주에 중국 광둥성에 파견할 예정임. 동 정제시설은 광둥성의 남서부 지앙먼의 잔지앙, 마오밍, 타이산과 남동부 휘조우의 다야灣 등의 후보지 중에서 건설될 예정임.

- 동 정제시설은 30만b/d급으로 '13년 가동 개시할 계획이며, 100% 쿠웨



이트 원유를 처리할 예정이다.

- 동 정제시설은 애초 광저우성 난샤 지구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금년 초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증대되면서 광동성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부지로 잔지앙을 추천하였음.
- 상기 프로젝트는 중국의 최대 합작투자에 해당하며, 쿠웨이트로서는 '15년까지 對중국 원유수출목표 50만b/d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동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이 '09년 중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쿠웨이트는 4월 중국으로 22.4만b/d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며, '04년 1.8만 b/d에서 12배 증가하였음. OPEC의 4번째 최대 원유생산국인 쿠웨이트는 원유생산능력을 현재 300만b/d에서 '20년까지 400만b/d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ArabianBusiness.com, 2009.6.21)

#### □ 요르단-영국, 원자력협력 협정 체결

- 요르단 압둘 2세의 영국 방문 중 양국 외무장관은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요르단은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국 내의 우라늄을 활용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계획임.
- 요르단은 12억 톤의 인산광물 매장지에 13만 톤의 우라늄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농축하여 원자력발전용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국의 밀리반드 외무장관은 동 협정 체결 후 요르단의 원자력프로그램은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민수용 원자력프로그램 개발을 고려 중인 국가에 주요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AFP, 2009.6.22)

#### □ 이집트, 對이스라엘 가스가격 협상력 강화

- 이집트는 지난 5월 이스라엘과 가스가격인상 협상 이후, 이집트 EMG(East Mediterranean Gas)가 '05년 EGPC(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09년 6월 15일 이스라엘에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계약 물량(566만 $m^3$ /d)을 공급하였음.

- '05년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연간 최대 70억 $m^3$ 의 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08년 5월 가스공급이 시작되면서 이집트 내부에서는 가스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었음.
-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가스가격인상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신규 발견 가스전 생산이 '14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집트는 자국에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였음.
- 동 협상으로 개정된 계약(6월 1일 발효)에 따라, EMG는 이집트 정부에 \$3.00~3.50/MMBtu와 기간별 가격 조정분을 지불하며, EMG는 다시 이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이스라엘에 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보임.

(Middle East Economic Survey, 2009.6.22)



## EUROPE & AFRICA

### □ 러시아, 신규 유전에 대한 과세완화 검토

- 러시아 에너지부는 신규 유전의 원유생산에 대해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석유세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동 변경안에는 신규 유전의 광물채굴세(Mineral Extraction Tax, MET)를 폐지하거나 생산량 대신 생산비용과 수송비용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지난 2월 푸틴 총리는 기업운영의 실질성과를 기준으로 신규 유·가스전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러시아 에너지부 Sergei Shmatko 장관은 현행 세제 하에서 '09년 석유 및 가스관련 세수 중 \$57억 가량, '10년에는 \$161~193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기존 유전의 36%와 신규 유전의 94%가 수익성이 없다고 지적함.
  - 현행 과세 시스템은 기존 유전의 생산량을 높이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신규 유전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원유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조치를 실시할 경우,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은 '13년 1,002만b/d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880만b/d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08년 원유생산량은 974만b/d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음.

(Platts, 2009.6.18)

### □ 러시아 가스프롬, 이란-파키스탄 가스파이프라인 참여 가시화

- 이란 석유부의 특별 협상대표 Ghanimifard에 따르면, 이란과 파키스탄은 가스프롬이 이란-파키스탄(IP) 가스파이프라인에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 러시아의 한 외교관은 가스프롬이 IP 가스파이프라인에 참여하게 되면, 이란-러시아 가스스왑 협정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이란-러시아 가스스왑은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 2단계를 통해 이란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줌.

(Middle East Economic Survey, 2009.6.22)

## □ 프랑스, 저탄소자동차 개발에 자금 지원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저탄소자동차 개발을 위해 1차로 선정된 11개 연구프로젝트에 실증연구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ADEME는 '08년 9월까지 1차로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저탄소자동차 개발프로젝트에 총 5,7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오는 6월 26일까지 2차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총 5,000만 유로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이는 지난 '09년 2월 9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산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프랑스 정부는 '08년 7월 에너지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연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ADEME가 동 기금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 동 기금을 통해 제2세대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저장(CCS),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자동차,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기술,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저장과 변전기 등의 에너지신기술 연구프로젝트에 향후 4년간 4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ADEME, 2009.6.18)

## □ EPIA, 유럽 태양광발전의 경쟁력 제고위한 지원 촉구

- 유럽의 태양광부문은 지난 10년간 다른 에너지부문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설비용량을 증대해 왔지만, 현재 유럽의 전체 전력수요에서 동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이에 유럽태양광산업협회(EPIA)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태양광부문의 발전용량 증대를 위한 추가적



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함.

- EPI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시나리오 하에서 태양광부문은 '20년 전체 전력수요의 4~6%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가격의 무구매제도와 같은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20년 유럽 전체 전력수요에서 동 부문의 비중이 12%로 증대될 전망이다. 향후 유럽 전력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됨.
- EPIA는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강조했으며, 요금상계제(net metering)와 같은 지원정책도 태양광발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EurActiv, 2009.6.23), (Enerzine, 2009.6.23)

#### □ 스위스, '10년 탄소세 3배 인상 계획

- 스위스 연방환경청(OFEV)은 '07~'08년 연료부문의 CO<sub>2</sub> 배출량 감소가 충분하지 않아, 법안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톤당 12 스위스프랑인 탄소세를 '10년 1월 1일부터 36 스위스프랑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스위스는 '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배출량 감축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탄소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음.
- '08년 연료부문의 CO<sub>2</sub> 배출량은 '90년 수준의 88.8%에 달하여 법적 기준(86.5%)을 초과하였음. 이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원만한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인한 연료사용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스위스 연방정부는 탄소세 시행을 통해 연간 6억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2억 스위스프랑은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며 4억 스위스프랑은 국민들과 기업에 재분배될 예정임.
- 탄소세 인상은 에너지절약과 대체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스위스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Confédération suisse, 2009.6.19)



## □ Electrabel, 네덜란드에 고효율 복합화력발전소 착공

- GDF Suez의 벨기에 자회사인 Electrabel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Maasvlakte 발전단지에 800MW급의 고효율 바이오매스-석탄 복합화력발전소를 착공함.
  - 동 발전소는 '14년 가동을 개시할 예정으로, 총 12억 유로의 투자비용이 예상됨.
  - 동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수년 동안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서유럽의 전력공급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발전소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됨에 따라 발전효율이 기존 발전소의 36%에 비해 46%로 향상됨. 또한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각각 50%의 비율로 혼소하여 CO<sub>2</sub> 배출량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 상기 발전소의 효율 증대로 적은 양의 화석연료로 보다 많은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CO<sub>2</sub> 배출량도 약 25% 감소될 전망이다.
  - 또한 동 발전소는 로테르담 항구에 위치하고 있어, 석탄 및 바이오매스 수송과 냉각수 확보, 고압전력망과의 연계가 유리함.
- 한편 Maasvlakte 발전단지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시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동 발전소에도 CCS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GDF Suez와 Electrabel은 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최근 EU 경기진작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적 규모의 CCS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Electrabel은 네덜란드 동부 Nijmegen 근처에 위치한 Gelderland 발전소에 CCS 시범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동 플랜트는 '10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Electrabel, 2009.6.22)

## □ 케냐, 청정에너지개발로 에너지원 다변화 추진

- 케냐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청정에너지부문 발전용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동 부문의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임.



- 각 부처의 장관 및 차관들과 관련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담반은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등 청정에너지부문의 발전용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며, '12년까지 케냐 전체 발전용량을 추가로 2,000MW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12년 6월까지 청정에너지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내각에 의견을 제안할 계획이며, 관련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마련 방안도 제시할 예정임.
- UN에 따르면 케냐 북부지역의 풍력을 개발할 경우 발전용량을 향후 3,000MW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와 같은 발전용량 증대로 비싼 전력요금에 불만을 호소해 온 제조업체들과 관련 투자자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09년 5월 케냐 투르카나(Turkana) 지역에 30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 컨소시엄에 320억 실링을 지원하였음. 이는 현재 케냐의 총 설비용량의 25%에 해당하는 용량임.
- 또한 케냐는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신재생연료 개발을 통해 '12년부터 자국 내에서의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 바이오디젤 전략 프로젝트 4개년 계획 추진에 착수할 예정임.

(African manager, 2009.6.22)

## □ 석유메이저, 국제유가 회복세에도 투자 확대에 신중

- 석유메이저 기업들은 국제유가가 \$70대를 회복하면서,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생산효율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70/bbl을 기록했고, 12월 최저치인 \$34.20/bbl 보다 2배 이상 올랐음. 그동안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메이저 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런 추세가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속에 부채규모가 증가함.



- 회복된 유가 수준은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미래의 수급균형을 위한 설비 투자에 충분한 정도이지만, 수요 급감과 경제불황을 극복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 국제유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메이저 기업들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낙관적인 자신감을 갖기에 시기상조이며, 경제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석유메이저 기업들은 지출감소와 비용절감 노력으로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있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9.6.22)

#### □ 항공업계, 5년 내 바이오연료 사용 전망

- 세계 항공업계는 5년 안에 바이오연료가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50:50의 혼합비율로 항공유를 사용하는 방식은 2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연료 100%를 항공유로 사용하는 방안은 '13년 초에 인가될 것으로 예상됨. 혼합연료 사용 시 바이오연료 성분의 특성상 석유 제품보다 탄소를 60~80% 적게 배출함.
  - 이미 제트유와 바이오연료가 50:50의 혼합비율로 항공유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시범비행에도 성공한 바 있음.
- 전 세계 항공기가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핵심 문제는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곡물공급의 원활성 여부임.
  - 대체연료 사용의 성공은 석유와의 가격경쟁력에 달려있는데, 시장이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공급용 곡물을 재배할 것으로 예상됨.

(ViewsWire, 2009.6.22)



## 1. 미국 정부의 자동차연비 기준강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

### □ 개요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미국은 \$7,870억의 경기부양자금을 활용한 그린정책의 일환으로 원유의존도를 낮추고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
  - 정부의 CO<sub>2</sub> 감축방안 추진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12년부터 '16년까지 연간 5%의 연비개선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미국 자동차의 평균 연비기준보다 약 10마일 정도 강화된 것임.
- 미국의 거대 자동차제조업체인 크라이슬러와 GM의 파산으로 정부의 연비 강화정책은 한층 더 강력한 입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 세부 내용

- 오바마 정부의 그린정책은 에너지인프라 투자 및 여러가지 상충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관리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함.
  - 지난 1월 이후 오바마 정부는 기업평균연비 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기준 향상을 비롯한 공식적인 CO<sub>2</sub>의 배출원 규정,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에너지 및 수송연비정책에서 대규모 변화를 추진해옴.
  - 미국 환경보호청(EPA) Roger Martella 前보좌관은 이와 같은 변화가 EPA의 설립 이후 가장 공격적인 단계의 규제 시행으로 평가함.
-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자금 \$7,870억 중 수송인프라 개선 및 신규 전력 그리드 도입에 배당된 \$540억과 \$170억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액의 1/10 정도 수준에 불과함.
  - 미국의 전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electrification)하기 위해 최소 수 십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바이오연료 및 대체연료, 연비 수준이 높은 자동차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관건임.



-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크라이슬러와 GM의 파산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어,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환경문제와 개혁에 부진한 태도를 보여 왔던 미국 자동차업계에 강력한 입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됨.
  - 두 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현행 10%인 에탄올 혼합 비율을 15%로 확대하기 위한 로비활동 및 기후변화법안 반대운동이 불가능해짐.
  -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의 Dave McCurdy 회장은 최근 정부의 연비 및 연료효율성 제고정책을 지지한다고 전하면서, 소비자의 에너지소비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해결과제이며 법령이든 규정이든 가격신호(price signals)가 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통적 수송연료의 연비개선은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있어 현실적으로 최선의 중기적 대안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포드의 하이브리드 SUV 판매성공과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GM의 전기자동차 '10년형 세비 볼트는 연비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계의 비재래형 연료를 이용한 연비개선 가능성에 희망을 주고 있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9.6.22)

## 2. 중국,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관련 자발적 감축제안 입장발표

### □ 개요

- 중국 정부는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 협상과 관련해 5월 20일 '발리행동계획의 착실한 실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부안을 발표하였음.
  - 상기 정부안에 의하면 현재 상황의 인식하에 작성된 것으로 금년 말 예정인 기후협상에서 중국은 선진국에 40% 감축을 요구할 입장이며,



개도국에는 '적절한 완화행동'의 자발적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국제협상에 대응하되 GDP당 배출원단위 방식의 적용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

## □ 세부 내용

- 이번에 동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에서 지켜야 할 원칙,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각 달성해야 할 책임 등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음.
  - 중국 정부는 COP 15의 '발리행동계획의 착실한 실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부안을 발표하였음.
- 동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공통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 원칙의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른 개도국 발전권리의 확보, 완화·적응·기술 이전과 자금지원을 동일하게 중요성 있게 취급해야 할 것을 들었음.
  - 동 원칙에서 강조한 점은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기본체제 견지, 발리행동계획의 엄격한 준수임. 이는 조약 및 의정서 채택에 찬성하지만 이탈하거나 승인한 목표치에 불만을 갖고 감축성과가 확인 불가능한 국가와 발리행동계획을 무시하고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에서 분리된 의무를 요구하는 일부 선진국의 주장을 강하게 견제한 것임.
- 또한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폭적인 계측·보고·검증 가능한 배출량 감축의 수치목표를 의무화하도록 제시함.
  - 동 정부는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를 '20년까지 '90년 대비 적어도 40% 감축을 요구하며, IPCC에서 제시한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수준에 못미치는 국가에 경고하고 개도국 참가 등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음.
- 개도국의 완화행동은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체제하에서 발전과 빈곤 해소의 목표와 협조할 수 있는 적절한 완화행동을 취해야 하며, 개도국의 적절한 완화행동은 선진국에 의한 계측·보고·검증 가능한 기술, 자금 및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부문의 지원을 조건으로 함.



※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 훈련(training), 출판 등을 통해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CDM/JI(공동이행제도)에 관계되는 인력 및 조직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관련 중국 발표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견지해야 할 원칙	온난화방지체제 조약과 교토의정서의 기본적 체제를 견지, 발리로드맵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
	공통이지만 차이가 있는 원칙을 견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견지
	완화 및 적응, 기술이전과 자금지원을 동일하게 중요성 있게 취급
선진국의 감축목표	선진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폭적인 계획·보고·검증 가능한 배출량 감축의 수치목표를 의무화함
	역사적 책임, 공평성 원칙 및 발전단계를 근거로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를 '20년까지 '90년 대비 적어도 40%를 감축해야 함.
개도국의 완화행동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체제하에서 발전과 빈곤해소의 목표와 협조할 수 있는 적절한 완화행동을 취해야 함.
	개도국의 적절한 완화행동이 선진국이 의무적으로 수량을 감축하는 목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1) 개도국의 적절한 완화행동은 개도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조약형식으로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와는 다름.
	2) 개도국의 적절한 완화행동은 구체적인 완화정책, 행동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감축승인과 감축지표와는 다름.
	3) 개도국의 적절한 완화행동은 해당 국가의 국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일치해야 하며, 완화행동의 우선 영역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결정.
4) 개도국의 적절한 완화행동은 선진국에 의한 계획·보고·검증 가능한 기술, 자금 및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부문의 지원을 조건으로 함.	

- 개도국은 '적절한 완화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동 행동은 발리행동계획에 부합된 제안이지만 '적절한 완화행동'의 성격은 선진국의 의무 감축목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함.
- 이는 구체적인 완화정책 및 행동과 프로젝트에 따라 구성되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도 포함해서 개도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제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개도국에 감축목표 및 에너지효율의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요구하는 일부 선진국의 주장을 강하게 의식한 것임.
- 상기 정부안에 의하면 현재 상황의 인식하에 작성된 것으로 금년 말 개최될 예정인 기후협상에서 중국은 선진국에 적어도 40% 감축을 요구할 것이며, 개도국에는 '적절한 완화행동'의 자발적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국



제협상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6월 5일 원자바오 수상 주재하에 개최된 '국가기후변화지도소조' 회의에서도 상기 정부안이 제시한 원칙론에만 머물러 있음. 그러나 '07년 6월에 발표한 '중국기후변화대책국가방안'에서는 GDP당 에너지소비량의 개선목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개발 목표 등을 명기한 바 있음.
- 이에 향후 GDP당 배출원단위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예상됨.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별 기후변화대책방안을 보면 상기 지표 이외에 GDP당 탄소배출량의 개선목표를 새롭게 밝히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 제출하는 '적절한 완화행동'도 GDP당 탄소배출량을 명기할 것으로 보임.

(eneken.ieej.or.jp, 2009.6.12)



## 선물곡선 변화와 원유재고 감소에 따른 석유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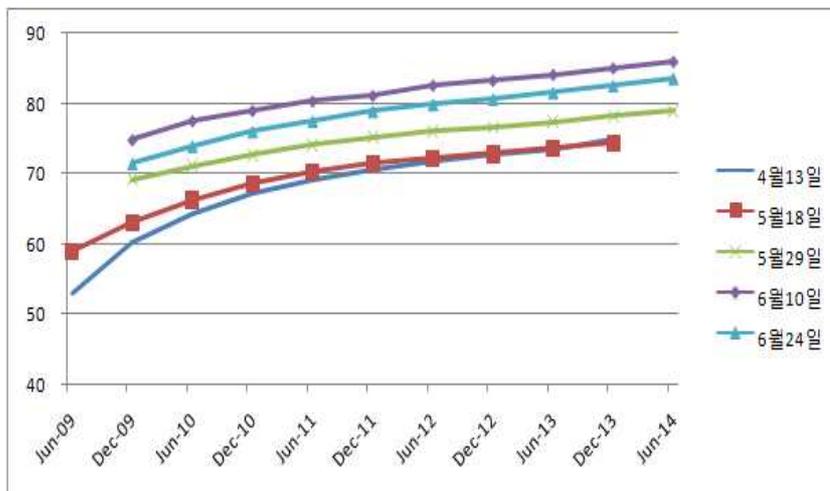
### □ 개요

- 6월 중순 유가는 \$70/bbl을 돌파한 가운데, 선물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평평해지는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투기 자본에 의한 유가변동 가능성이 더욱 확대됨.
- 한편, 원유 및 휘발유 재고는 감소, 중간유분의 재고는 증가함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의 유가 변동요인이 불투명해짐.
- 석유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현재의 선물곡선 변화는 투기자본 유입 증가를 반증하고 있으며, 투기자들은 석유선물시장을 안정적 수익 보장수단으로 인식하여 초고유가 시기의 재도래에 대한 우려가 커짐.

### □ 세부 내용

- 최근 석유 선물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평평해짐에 따라 투기자본 증가에 의한 유가변동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석유재고의 증가에 대한 석유 저장사업자들의 부담은 점차 가중됨.

Nymex 선물곡선



- 최근 8월 선물가격과 9월 선물가격은 단 90센트/bbl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황임.



- 대표적 해상 원유수송기업인 SSY 및 Shell, Koch, Vitol 등은 최근 원유 저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으로 재고물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원유재고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휘발유는 다소 감소, 중간유분 재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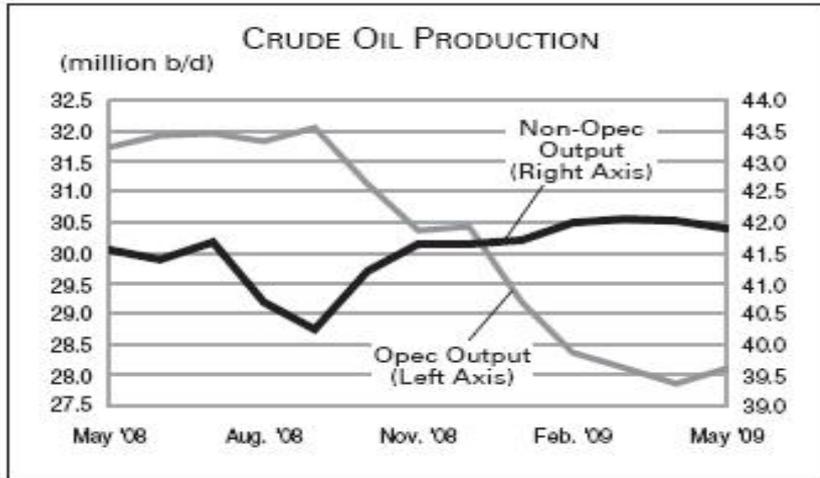
미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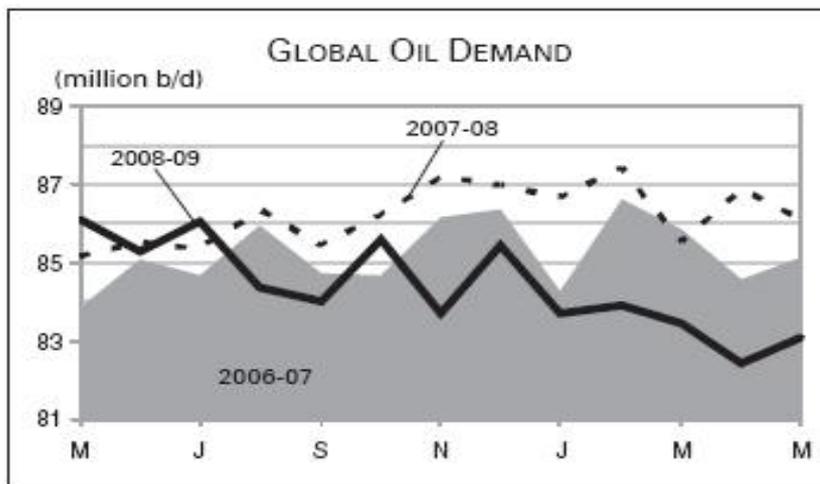
- 현재 석유시장은 펀더멘탈 측면의 유가 상승요인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나 선물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백워드이션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 백워드이션(back-wardation): 선물가격이 미래 현물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
- 투기자들은 현재의 석유선물시장을 안정적 투기시장으로 판단, 향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고,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되는 경우 석유수요의 증가 역시 유가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함.
  - 최근 석유 선물 거래는 상품으로의 역할 보다 재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음.
- 재고의 감소로 공급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향후 OPEC의 추가적인 감산 결정은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Ali-Naimi OPEC 총장의 4/4분기 \$75/bbl 유가전망 발표 당시 석유수요는 공급을 앞지른 상황이었으며, 최근 석유 수급상황은 더욱 타이트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지난해 9월 이후 OPEC의 석유생산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 최근 유가 급등으로 감산합의 이행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향후 추가 감산합의는 유가 급등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세계 석유수요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수요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님. 5월 기준 세계 석유수요는 83.1백만b/d로 전년동기대비 약 3백만b/d 감소함.



- OECD지역의 석유수요는 전년동기대비 2.5백만b/d 감소한 반면, 비 OECD의 경우 0.45백만b/d 감소함.



- 한편 중국의 석유수요는 8.2백만b/d로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3만b/d 부족한 상황임.

## □ 시사점

- 최근 유가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예측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년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
  - '09년 1월~5월 기간의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3.2백만b/d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IEA는 하반기 역시 현재의 석유수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석유의 회복은 석유 대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회복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최대를 갱신한 현재 석유수요가 단기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선물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보아 투기자본 유입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투기자본에 의한 선물거래 매수세 증가가 향후 유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Oil Market Intelligence, "Selling From Storage", "Demand Destroyed", 2009.6)